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10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 지속 여부는 불확실

인도 증시 외국인 수급 개선되는 추세

최근 인도 증시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FPI)는 7월 약 21억 달러, 8월 약 31억 달러를 순매수하며 두 달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다. 8월 순유입 자금 규모는 2024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양호한 기업 실적과 시 관련 자금 풀림 완화에 따른 신흥국 내 자금 재배분, RBI의 외화유동성 확충에 따른 루피화 변동성 완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본격적인 복귀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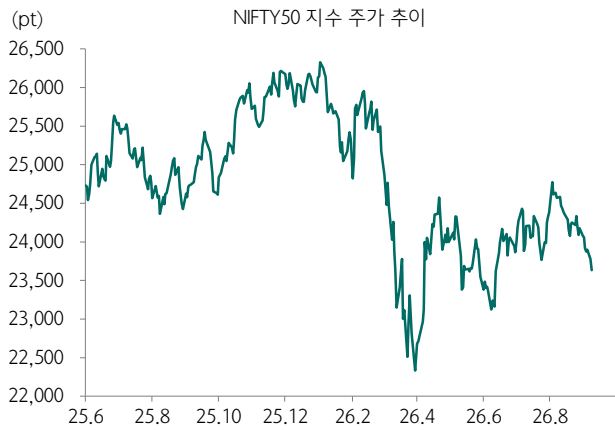
그동안 로컬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꾸준한 매수세가 증시 하단을 지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자금의 복귀는 향후 인도 증시의 추세적 반등을 좌우할 핵심 변수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도 불구하고 8월 NIFTY50 지수는 전월 대비 -1.24% 하락했으며, 9월 들어서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연초 이후 누적 순매도 규모가 약 290억 달러에 달해 최근 두 달간의 순유입만으로 기존 자금 이탈을 상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데다, 최근 유입된 자금의 성격 역시 지수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매수세로 보기에는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8월 외국인 주식 순매수의 39%는 발행시장, 나머지 61%인 약 20억 달러는 유통시장에서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 블록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대금도 약 15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에는 일부 대규모 거래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대외 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원유 순수입국인 인도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여타 국가 대비 높은 만큼, 고유가 장기화는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 루피화 약세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인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도 자산의 상대적 투자 매력을 낮추고 루피화에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편더멘털 견조하나,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증시 좌우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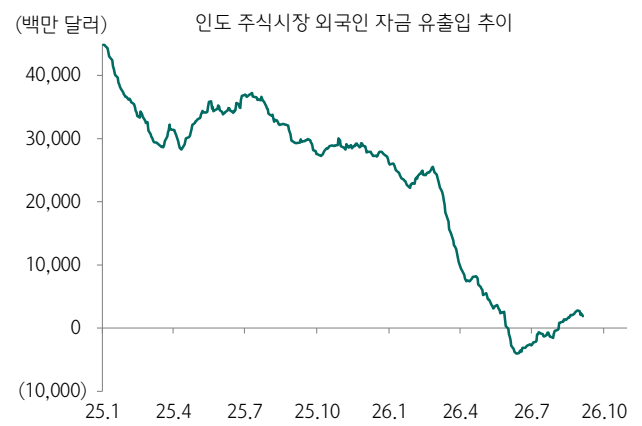
최근 발표된 FY2027년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YoY +7.8%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고, 내수소비 역시 아직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편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최근 증시는 성장 모멘텀보다 유가와 글로벌 금리, 환율 등 대외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인도 증시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의 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 전까지는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1. 인도 NIFTY50 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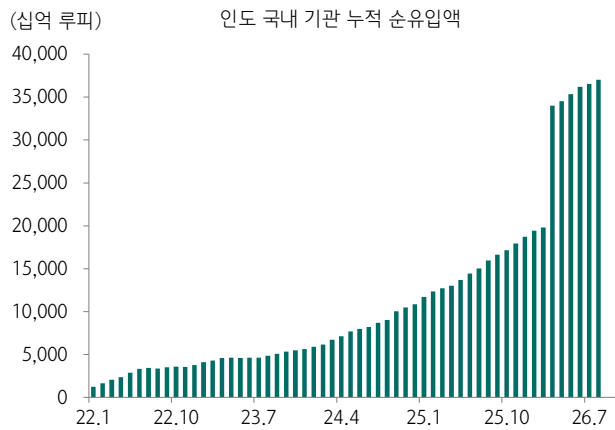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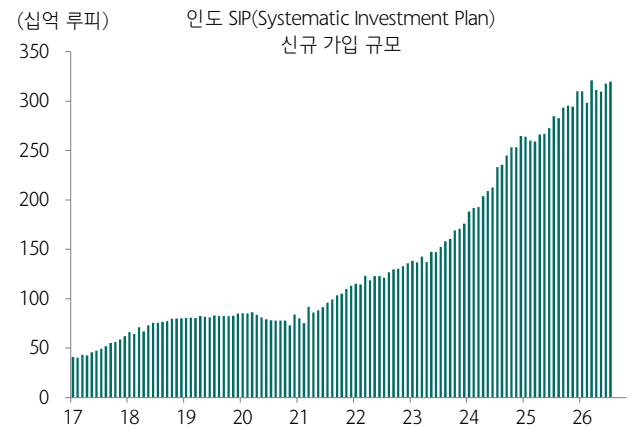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인도 로컬 기관 누적 순유입액



자료: STOCKEDGE, 하나증권

도표 4. 인도 SIP 신규 가입 규모(로컬 개인)



자료: Association of Mutual Funds in India, 하나증권

도표 5. 브렌트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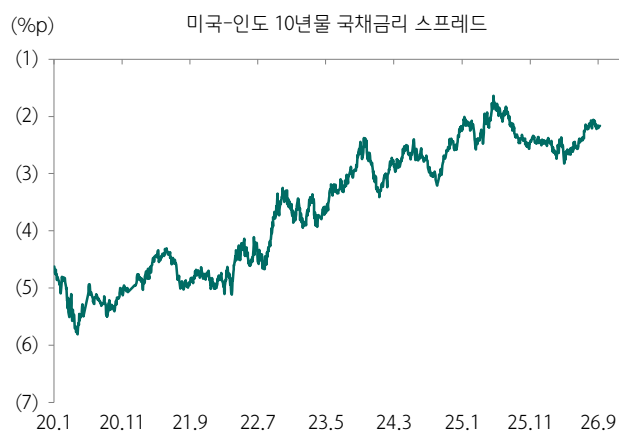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달러/루피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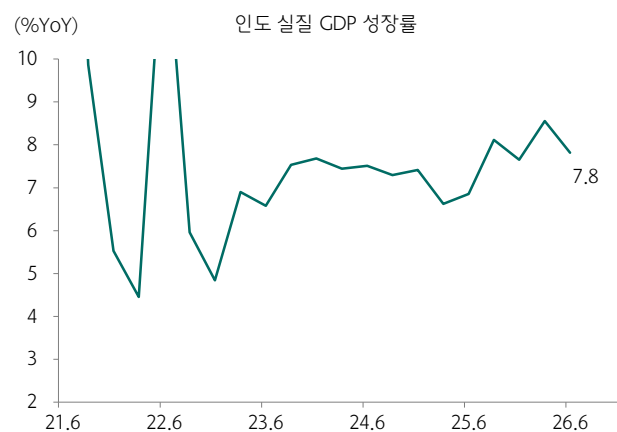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미국-인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8. 인도 실질 GDP 성장률



자료: CEC, 하나증권